조 사(弔 詞)

이 건 국(李建國) : 1945年 8月 16日 釜山 影島 生

■ 학력
1966.2.28 건국고등학교 졸업
1989.2.17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경력
1979.06.26 주식회사 일흥 창업 대표이사
2005~2006 국제로타리클럽 제8지구 총재지역대표
2006.02.22 제8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환태평양용접연맹(POCWA)회장
2008.01.03 중소기업중앙회 남북경제협력위원장

■ 포상
1998.12.04 중소기업청장 표창장
2004.11.25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장
2007.11.15 대한용접접합학회 공로상

고 이건국이사장님을 기리며

당신의 극락승천을 접하였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과 대한용접·접합학회 간 상견례 때, 항상 구리 빛의 건강하시던 모습이 수척하심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하였지만, 당신께서는 여늬 때와 다름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좋은 의료진을 만나 치료가 잘 되고 있으며, 완치될 수 있음에 너무 확신하셨기에, '병의 치유는 환자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옛말을 되뇌이며, 완쾌하실 것을 두손 모아 기원하며, 완쾌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

이제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건국이사장님'을 가슴으로 불러보며, 차분히 당신께서 못다한 꿈들을 저희들이 대신할 수 있을까 감히 고민해 봅니다.

제가 24년 전 처음 당신을 만나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작업장에서 막 나오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수줍음 담긴 순박한 웃음과 함께, 악수를 청하실 때 당신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당신의 용접에 대한 열정과 긍지를 다른 분에게 소개할 때 마다, 그 때의 상황을 인용하면, 당신께서는 싫치 않은 표정으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당신의 용접에 대한 열정과 긍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구하시던 패기, 개발하신 제품에 대한 자신감에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또한 당신께서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에 취임하시면서, 함께 일 할 수 있는 기간이 일년 밖에 안 됨을 아쉬워하시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용접기술관련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더욱 굳건히, 더욱 활성화하여 산업계와 학계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열정적으로 다가오실 때마다, 제대로 대답을 못해드렸음이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나마 2007년에 큰 행사였던 국제용접전시회와 국제용접학술대회를 서로 협심하여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음이 조그마한 위안이 됩니다. 그 당시 당신께서는 이를 기점으로 양 기관이 더욱 왕성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황금빛 내일을 꾸준히 준비하시자고 다짐하시던 말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께서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용접에 대한 사랑, 꿈, 열정은 용접인들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신께서 못다 하신 꿈을 꼭 완성시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건국이사장님! 너무 열심히 사셨습니다. 너무 보람있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이제 모든 짐 다 내려 놓으시고 당신의 그림자를 쫓던 저희들을 믿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서로 협력하며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면서 편히 쉬십시요.

2008년 4월

제12대 회장 박 동 환